

사이버 禪강좌 열린다

延大 '동양사상과 선' 내달 15일 개강

"사이버 세상에서 선(禪)을 배운다." 최근 세계인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선불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다 대중에게 쉽게 다가 가고자 '동양사상과 선' 강좌가 개설된다. 연세대학교 사이버 교육원에 개설되는 이 강좌는 신규 탁 교수(연세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펼친다.

신규탁교수 강의

신 교수는 "선불교는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자기만의 언어로 생생하게 자신만의 인생을 체험하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나 몸짓으로 표현하도록 한다"며 "이런 선사들의 정신은 현대의 대중사회 속에서 고립되는 개인에게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흥미하게 해 줄 것이기에 선어록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4월15일 정식 오픈될 '동양사상과 선' (<http://yonsei.hanaro.com>)은 12주 강의 가운데 36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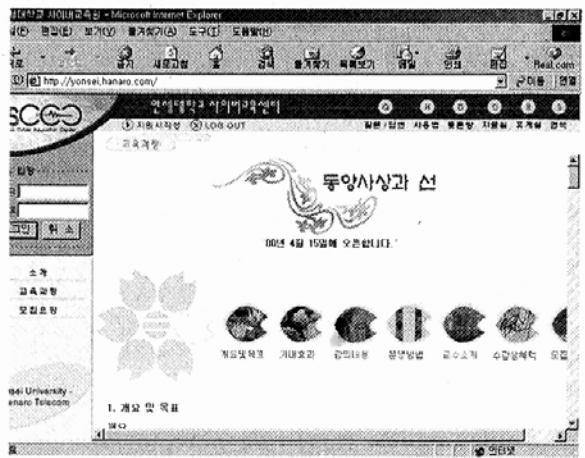
은 사이버강의, 12시간은 대면강의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의 내용은 △선불교란 무엇인가-인도의 우주관, 인간 석가모니의 사상, 인간의 행위를 중시하는 사상 △중국의 불교-번역승들의 행로, 노장사상과의 만남, 중국화되는 불교 △기성교단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모색-기성불교에 대한 갈등의 고조, 교조주의에서 탈피, 새로운 종교운동의 시작 △흔들리는 젊은 수행자를 위한 질책-죽음, 부처도 사모하지 않는다. 제 목소리 △해능과 육조단경-공부에 찢든 세상, 마음이 열리는 세상, 전설이 만들어지는 세상 △하락사회의 선사상-호적과 스즈끼의 대결, 누가 정통인가, 굴절되는 역사 △마조도일과 홍주종-마음이 부처, 그대는 완성된 주체이다. 교단의 형성 △임제대에서 조주방에서-내가 바로 부처, 부처라는 집에 억눌린 자들, 엇먹어라 △선종과 교종의 통합운동-역을 한 누명:종말신, 뒤에 오는 이

들의 안내관, 무식이 통하는 세상 △선어록의 레토리-술지계미 먹고 기본내는 놈, 사람 달아내는 말뚝, 개도 부처가 된다는데 △선과 문화-황악루에 올라 시 한수 지어보게, 창랑의 시화(詩話), 벽 앞에서 오고간 사연들 △선과 언어-영원히 잊지 못할 그대:이마를 간다, 걸림없는 수행인:자손이 귀하다, 꺼져라:차나 한잔 드시오 등이다.

연세대에서 개최하게 될 대면 강의에서는 사이버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규탁 교수가 직접 강의소개를 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사이버 강의 도중에도 세차례에 걸친 대면강의를 통해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질의응답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호회 개설도 가능

'동양사상과 선' 강좌는 선착순 100명에 한해 3월 말까지 수강접수를 받는다.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수강료는 15만 10MB의 메일과 홈페이지 용량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하나내에 동호회 설립을 지원받는다. 강의를 끝마치면 수료증도 수여한다. 사이버 교육원은 '동양사상과 선' 이외에도 사이버 공간의 심리, 마광수 교수의 시창작교실, 등의 일반인을 위한 교양강좌와 청소년을 위한 멀티미디어 등 실용강좌를 비롯 학점으로 인정하는 전문과정에 사이버 신학과정, 종교심리학, 종말론, 사이버스페이스와 법률과정, 사이버 논리의 술교육, 사고력 지도와 논리교육,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등을 개설했다.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박종욱 <생명의 실상 연구소장>

유년기에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라다녔던 선식사라는 절과 그 주위의 경관이 고향산천의 모습과 함께 자주 떠오르니 이것이 불교와 나의 첫 인연인 것 같다. 청년기에 들어서는 절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가끔 일어나 절을 찾아가 법당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염불을 따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불교란 삶에 관한 어떤 의문에 대해서도 답을 다 해줄 수 있는 신비에 싸인 종교라고 막연하게 믿게 되면서 언젠가는 제대로 공부를 해 보겠다고 마음 속으로 원을 세웠다.

30대 후반부터는 등산을 좋아하게 되어 매일 아침 산에 오르면서 30분은 염불을 해야겠다는 발원을 했다. 그 후 지금까지 꾸준히 아침에 염불을 하면서 산에 오른다. 50대 초반까지는 직장생활에 충실하면서 틈틈이 불교서적을 구해서 읽고 염불도 해보고 스님과 성직자를 찾아 법문을 들어보았지만 의문에 대한 진전은 조금도 없었다.

50대 중반이 되면서 동료 교수 9명과 함께 성전암 철동 큰스님을



고 있는 동안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일도 있었다. 그 이후 손에 끼이는 기로 미약하나마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였는데 이 신비한 치유의 힘이 놀라면서 한편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이런 체험들을 겪는 동안 나의 마음은 한결 맑아지면서,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상의 세상이며, 오직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임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한다면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도 없앨 수 있고 보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

"긍정적으로 살면 세상은 극락"

찾아 읽고 공부하게 된 것이 나에게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스님의 쉽고 자신에 찬 확고한 설법을 우리를 크게 감동시켰다. 내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느낀 기의 흐름이 하루가 다르게 강해져 공부를 마칠 때는 손과 얼굴에서도 변화의 열기를 알 수 있었다. 어느날 기도 중에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소리(音)가 온 천지에서 서서 울어 나왔다. 그 소리의 울리는 나의 몸 안으로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하여 기도를 계속하기가 무척 힘이 들었지만 기도를 마치는 순간 마음과 몸이 그전보다 편하고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날 기도 때는 전날보다 소리도 공포심도 적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데는 수년이 걸렸고 동시에 여러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역시같은 소나기가 쏟아지는 중에 우리 일행이 탄 차는 <반야산> 경내 남쪽에서 비가 맞고 다시 비가 오면 또 남쪽에서 비가 맞는 신비한, 운전 중에 치통이 너무 심하여 견딜 수가 없었는데 사뭇과 함께 손가락으로 아픈 이를 누르

이 바탕이 되어 무엇보다 포교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본 마음을 포교에 충실하겠다는 발원으로 다짐했다.

선원불교대학지도교수, 학생생활 연구소장 등을 지내면서 본교 학생과 교직원 외에 타학교 학생과 일반인들까지 많은 상담을 했다. 이런 상담을 바탕으로 나는 또한 나의 원을 세웠다.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고 말이다. 공직자는 물론이고 산업체, 군부대, 학교 등에서 불성을 가진 인간의 위대함, 인과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강연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

지금은 대구북부법륜불자교수회가 후원하는 생명의 실상 연구소를 개설하고 있다.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를 초월한 강연과 상담으로 진리를 전하는 교육이 더욱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3년을 앞당겨 퇴직할 이후, 이 진리를 전하는 일이 나의 하루하루 수행이라고 믿고 또 내가 지상에 태어난 사명이라고 느끼며 열심히 정진할 것이다.

그림 너무 많으면 속도 장애

홈페이지 만들기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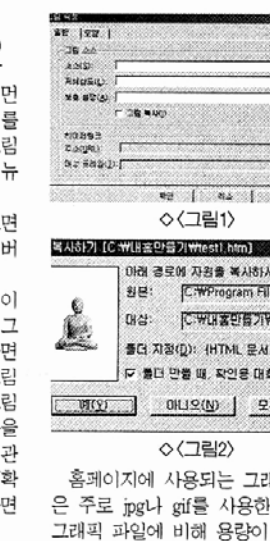
첫화면을 그림으로 꾸며보자. 먼저 그림이 들어갈 위치에 커서를 놓고 기본 도구막대에 있는 그림 삽입하기 아이콘을 누르거나 메뉴의 '삽입', '그림'을 선택한다.

'그림 속성' 대화상자가 나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찾아보기' 버튼을 누른다. (그림1)

'열기' 대화상자가 뜨면 그림이 있는 폴더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그림 파일을 클릭한다. 두번 클릭하면 열기를 누르지 않아도 단번에 그림이 선택된다. 첫화면에 들어갈 그림을 선택했다면 '그림 복사' 항목을 클릭하고 '보충설명'에 그림에 관한 설명을 입력한 후 아래의 '확인'을 누른다. 선택한 그림이 화면에 나타난다.

'그림 속성'의 보충설명은 해당 그림의 설명을 입력하는 것이다. 이 설명은 나중에 웹브라우저에서 마우스 그림 위로 가져가면 그림 설명으로 뜬다. 저장하면 '자원 복사하기'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예'를 누른다.(그림2)

그림을 저장하는 폴더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새 디렉토리를 만들 것인지 묻는다. 이때 '예'를 누르면 새로운 폴더에 이미지가 저장된다.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그래픽 파일은 주로 jpg나 gif를 사용한다. 다른 그래픽 파일에 비해 용량이 작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장식할 때 너무 그림이나 이미지 파일이 많으면 열리는데 시간이 오래걸려 네티즌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 용량을 줄여 주는 시간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림크기를 조절해보자. 그림위에서 클릭하면 '그림도구' 상자와 크기조절 포인터가 생긴다. 포인터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화살표로 바뀐다. 그때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 그림크기를 조절하면 된다.

우리 모임에선

농불회 23일 창립 법회

농림부 내 불자들의 모임인 농불회가 23일 정오 농림부 내 회의실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출범한다.

이날 창립법회 후 농불회는 격달 모임을 정례화하고 신심함양에 힘을 예정한다. (02) 503-7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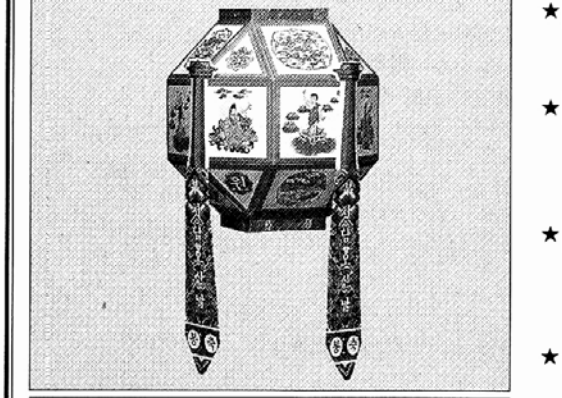
불교언론인회 정대스님 초청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정대스님에게 종단화합에 대한

클릭! 새 홈 페이지

- 원광대 불일동문회(<http://www.freechal.com/workwang>)-2월28일 개설. 한국대 학생불교연합회 원광지부 동문회로 졸업생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공간.
- 창원대 불교학생회(<http://cafe.daum.net/changboon>)-2월28일 개설. 창원대 불교 학생회 모임.
- 우리는 선우 종교당(<http://www.freechal.com/sw2000>)-2월29일 개설. 우리는 선우 종교당학생회 회원 및 동문들을 위한 홈페이지.
- 한운문 시집(<http://www.freechal.com/kimki66>)-3월1일 개설. 만해 한운문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opia.com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생활 경제에 외국인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문의 하실 곳 : (02)467-1513 H: (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팔각 구조에 남쪽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각등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정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야외작업용

'복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정열'에 활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하여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결지 하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 우 기 획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향비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맑아...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원할(배꼽)에 착용하면 평항약용식물의 성분이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낸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뱃속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하여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불순, 무명증, 무명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할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의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 애타게 찾는 여성 애독하시는 분은 꼭 신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장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위축이 있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배꼽이 고통스럽다
- 11 배나 복부 근력이 많이 썩었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앞가리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활력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바짝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당뇨나 감성으로 고통을 당한다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